



시로 읽는 성보소례  
내 마음을 가져가요

국보 제27호 불국사금동아미타여래좌상  
통일신라시대 ▶2면

1994년 10월 15일 창간

대표인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 현대불교

hyunbulnews.com

지나간 일을 슬퍼하지 말며  
미래에 대해 바라지 말라.  
(<본생경>)

불기 2556년 단기 4345년(음력3월 28일) · 주간

제884호 2012년 4월 18일 수요일

## “물질에 오염된 승단 사회보다 청렴해야”

### 원로의원 월탄 스님, 통합종단50주년 기념 법어

“부모·형제 버리고 중생 해탈코  
자 출가한 스님들이 물질·금전주의  
에 오염돼 있다. 이는 반드시 척  
결해야한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4월 10  
일 조계사에서 통합종단 출범50주  
년 기념법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 원로의원 월탄 스님은  
1960년 11월 24일 ‘대법원 6비구  
할복사건’을 비롯해 통합종단 50년  
사를 법어로 대신한 자리에서 이같  
이 말했다.

스님은 “당시 총무원장·본사주  
지 등을 하라던 스님들이 서로 사양  
하고 고사했다. 보살적 삶을 살던  
과거와 달리 요즘 참 부끄러운 일이  
 많다”며 “선거 등 종단의 일들은 사  
회보다 깨끗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월탄 스님은 “조계종 원로의원스  
님부터 깨끗한 선거 문화에 앞장서  
기 위해 제13대 종정스님 추대와 관  
련해 정립해 치루겠다는 각서를 쓰  
고 진행했다”며 “각서를 통해 금품  
을 전달하거나 전화·방문 등을 하  
지 않고 안정적으로 중정을 모실 것  
을 다짐했다”고 말했다.

스님은 “하늘과 땅은 나와 더불어  
한 뿌리 생명이고, 만물은 나와  
더불어 한 몸이로다. 동계대비심으로  
살면, 사바세계가 극락정토가 되

리라(天地與我同根 萬物與我同體  
行心同體大悲 娑婆變化淨土)”라며  
“하늘과 땅, 나는 모두 하나다. 지구  
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은 나와 남이 돌이 아니  
기 때문이며, 내 잘못은 이웃도 잘  
못하게 한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  
는 당부로 법어를 마쳤다.

월탄 스님은 쓴소리에 앞서, 자신  
이 6비구로 할복까지 해야했던 정

### 정화 당시 ‘8대원칙’ 강조

### 승려 본연 모습 갖길 당부

### 자승 스님 “선대원력 경의”

### 자성·쇄신 결사 실천 다짐

화운동사를 범문의 대부분으로 할  
애했다. 그러면서 비구-대처간 합  
의했던 ‘승려자격 8대 원칙’을 거  
듭 강조했다.

승려자격 8대원칙은 ▷독신 출가  
승 ▷사발염의 ▷수도 ▷20세 이상  
▷불주초육 ▷불법사바이(불상생  
불투도 불사를 불망어) ▷비불구자  
▷3년 이상 승단생활자이다.

월탄 스님은 “1000여 명 남짓한  
비구승들이 7000여 명의 대처승들  
을 몰리치고 불교 본연의 모습으로

되돌릴 수 있었던 까닭은 죽음을 각  
오하고 호법(護法)에 뛰어들 수  
행자들의 순수한 마음 때문이다. 오늘  
날 스님들도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간  
직하고 있는지 자성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종단을 태동시킨 불교정화운  
동 원동력이 위법망구(爲法忘軀)  
정신이며 출가자라면 그 정신대로  
살아야 한다는 당부이다.

이에 앞서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조계종의 지난 50  
년 역사의 거울 앞에 자성과 쇄신이  
라는 실천적 결단으로 서었다. 이는  
국민의 종교로 거듭나고, 못 생명의  
안락과 행복을 현대적으로 실천하  
자는 종단의 의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자승 스님은 “끊임없이 사회와 소  
통하며 희망찬 미래를 열고, 국민의  
행복과 평화를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로 반세기를 기념하는 의미일 것”이  
라며 “50주년을 기념하는 뜻 깊은  
자리를 통해,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불교이념과 모든 존재의 자유와 평  
화를 실현하고자 전력을 다한 선대  
의 원력에 경의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월탄 스님은 이날 법회 후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아름  
다운동행(이사장 자승)에 논산 호  
국연무사 건립기금 2000만원을 전  
달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출가자라면 위법망구해야”

조계종 원로의원 월탄 스님(사진 오른쪽)은 4월 10일 조계사에서 열린 통합종단 출범50주년 기념법회에서 법문했다. 이날 스님은 1960년 11월 24일 ‘대법원 6비구 할복사건’을 비롯해 통합종단 50년사를 법어로 대신하며, 출가자의 본분을 거듭 당부했다. 스님은 “옛날에는 총무원장·본사주지 등을 하라던 스님들이 서로 사양하고 고사했다. 보살적 삶을 살던 과거와 달리 요즘은 법어사·법주사 주지 선거에서의 본분투 파문 등 참 부끄러운 일이 많다”며 “선거 등 종단의 일들은 사회보다 깨끗이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 무형문화재 연등회 이제 세계화만 남았다

### 문화재청 6일 지정 고시… 인류유산 등재 신청도

영산재와 더불어 한국불교 대표  
무형 문화유산 연등회가 국가 공인  
무형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청장 김찬)은 지난 6일  
관보에 조계종 연등회 보존회를 보  
존단체로 연등회를 중요 무형문화  
재 제122호로 지정했다고 고시했다.  
이로써 연등회는 4년여 간의 준비기  
간을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인정  
받게 됐다.

### 불교계 환영, 5월 11일 학술대회

연등회 무형문화재 지정에 불교  
계는 축제의 분위기다. 조계종총무  
원은 지난 10일 발표한 대법원 환영  
논평을 통해 “연등회의 중요 무형문  
화재 지정은 한국 전통문화유산들  
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태종도 논평을 내고 “연등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에서 세  
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거듭나는 기  
회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조계종은 지정을 기념하기 위한  
학술대회와 축하연을 오는 5월 1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  
회의장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보유단체로 인정된 연등회 보존  
회도 확대 운영된다. 조계종은 청사  
지하에 연등회 보존회를 위한 사무  
공간을 확보하고 인력도 충원할 계  
획이다.

### 매월 지원금, 행사 보조 혜택

연등회가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로 지정돼면서 얻는 가장 큰 혜택은  
연등회 보존, 육성을 위해 공식적인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  
이다. 문화재청은 지원 기준에 따라  
매월 6백만 원 가량의 지원금을 연  
등회 보존회에 지급하게 된다. 또한  
매년 봉행되는 부처님오신날 연등  
회에도 행사 보조금이 지원될 것  
으로 보인다.

### 3월 30일 유네스코 등재 신청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연등회의 화두는 이제 ‘유네스코 인  
류무형문화유산’ 등재로 넘어갔다.  
문화재청은 3월 30일 외교통상부를  
통해 연등회를 유네스코 인류무형  
문화유산에 등재 신청했다.

영문으로 작성된 신청서에서는  
연등회의 역사와 가치, 향후 계획 등  
을 기술했으며, 영상과 사진 역시 이  
를 증명할 수 있게 구성된 것으로 알  
려졌다.

연등회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 등재 결과는 내년 11월 열릴  
제8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 세계 자비 축제로 발돋움 ‘속제’

이와 함께 연등회는 빈자일등(貧  
者一燈)의 공양 정신을 되살려 세계  
가 함께 할 수 있는 축제로 발돋움하  
야 한다는 숙제를 남겼다.

이에 대해 김용덕 한양대 교수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연등회가 단  
순 불교 의례를 넘어 세계인이 공감  
할 수 있는 자비 축제로 바꾸는 것”  
이라며 “지방은 지방 나름대로 교유  
의 연등회 전통을 전승할 수 있도록  
연등회 보존회의 관리가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관련링크 31면](#)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 884호 CONTENTS

종단  
19대 국회의원 불자 40명

시방세계  
2012 포교결집대회



기획시리즈  
조계종 50년  
내일을 위한 핵심과제 7

절이 있는 돌레길  
쌍계사 십리 빛꽃길

문화  
기부 펼치는 대안카페

신상품  
LED인등·전구

한덕불교

031)792-6288 / 794-4055

## 불기 2556년 봉축 포스터 공개

불기 2556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위원회(위원장 자승)가 봉축포스터  
(사진)를 일간에 공개했다.

포스터는 참선을 하고 있는 동자  
승이 두 손으로 연등을 받치고 있  
는 모습을 형상화했으며 검은색과  
노란색 바탕 2종류로 구성됐다. 동  
자승 위에는 올해 봉축표어로 선정  
된 ‘마음에 평화를 세상에 행복을’  
이란 문구도 새겨 넣었다.

이번에 발표된 포스터는 연등회  
홈페이지(www.lf.or.kr)에서 다운  
로드할 수 있으며, 올해 봉축 현수  
막 시간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봉축위원회는 연등회의 흥  
보를 위해, 영어 일본어 중국어 프



랑스어 스페인어 등 8개 언어로 된  
소재자도 만들었다. 신종일 기자

## 조계종 외국인스님, 한국불교 역할 모색

조계종 교육원(교육원장 현웅)  
은 5월 11일 서울 신정동 국제선  
센터에서 조계종 외국인스님들  
을 위한 연수를 개최한다.

이번 연수는 국내외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스님 70여 명이 참석  
할 예정이다.

교육원은 외국인스님들에게  
해외교구 및 본·말사, 템플스테  
이 사찰 등 국내외의 종단 관련 기  
관에 대한 정보와 주요 사업내용  
을 안내하는 등 스님들이 국내외  
에서의 역할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예정이다.

조동섭 기자 cetana@hyunbul.com

**유식불교의 이해**

목경찬 저음 / 264면  
15,000원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고 오직 식별임을 밝히는  
유식불교의 참뜻은 무엇인가?

유식불교의 사상적 체계를 수립한 세친의 『유식삼십삼승』에  
대한 주석을 편집·정리한 『성유식론』에 의거하여 <유식무경(唯識無境)>,  
즉 오직 마음만 있고 대상은 없다는 이치를 독자의 눈높이에서  
오늘의 언어로 상세하게 설명

권의 일정 불광사 5월 3일(목) 개강 문의전화 02.417.2551  
조계사 3월·6월·9월·12월 개강 문의전화 02.720.1390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가장 사랑받았고 감동적이었던  
열다섯 분 스님들의 법문을  
가려 엮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경계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원산 스님 외 14명  
176면 / 11,000원

불광출판사 www.bulkwang.co.kr @bulkwang\_c www.facebook.com/bulkwang

Money, Sex, War, Karma  
**돈, 섹스, 전쟁**  
그리고  
**카르마**

그리고  
**카르마**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불교 교양 강의

나는 왜 고통스러울까? 왜 늘 돈이 부족한 걸까?  
왜 항상 시간에 쫓기는 걸까?  
사람들은 왜 섹스에 매달릴까?  
그리고 왜 세계는 전쟁을 멈추지 않는 걸까?

이 모든 질문들에 불교는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데이비드 로이 저음  
하우성 옮김  
240면 / 15,000원